

사랑방장 교재

가. 관찰질문

1)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어떻게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18 절)

- 첫째로 성령 안에서, 둘째 깨어 구하고, 셋째 항상 힘써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기도가 성령의 검의 예리한 날이 됩니다. 이것은 성령에 민감해 져서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 선교사 집에 든 강도가 무장한 군인을 보고 도망감. 그때 본국의 중보기도자들이 기도!
- 깨어 구하고 라는 말은 기도할 때를 분별하라는 말입니다. 상황과 현실에 갇혀 기도할 때를 놓치면 안됩니다.
- 항상 기도하는 것은 쉬지 말고, 늘 생각으로 마음으로 영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영적인 대화인 기도를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 모든 성도는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2)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힌 자신의 형편을 어떻게 묘사했습니까? (20 절)

- 바울은 자신이 “죄사슬에 매인 사신” 이라고 말합니다. 사신은 한 나라의 보냄을 받은 대표자입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힌 것이 사람들의 일 같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나를 보내셨다 것입니다.

3) 두기고는 어떤 사람입니까? (21-22 절)

- 두기고는 첫째, 에베소 성도들에게 사랑받은 형제였습니다. 그는 에베소 출신으로 사도 바울과 동역하면서 바울의 사랑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모교회인 에베소 성도들에게도 사랑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 둘째, 그는 진실한 일꾼이었습니다. 골로새서 4:7 에서는 진실한 일꾼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든 기근에 이방 교회들이 부조할때 에베소 교회 대표로 의연금을 전달한 믿을 만한 인물이었습니다.
- 셋째, 그는 위로의 사람이었습니다. 두기고의 말과 행실은 사람들의 염려를 가라앉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며,

은혜와 평강을 끼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특별히 두기고를 에베소, 골로새, 히에라볼리, 라오디게아 지역을 돌며 성도들을 위로하게 했습니다.

4) 바울의 마지막 인사에 반복된 단어는 무엇입니까? (23-4 절)

- 마지막 인사말에 반복된 단어는 “사랑” 입니다. 에베소 성도들에게 “믿음을 겸한 사랑”을 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할 것을 축원했습니다.
-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성삼위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안에 연합하게 하신 모든 성도를 사랑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나. 나눔질문

1)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 모두가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의 기도로 밖에 무장할 수 없지만, 모든 성도가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면 더 많은 기도의 무기로 무장할 수 있습니다.
- 모든 성도를 위한 중보기도는 수 백개, 수 천개의 성령의 검이 모인 강력한 무기와 같습니다. 사단이 가장 무서워 하는 것은 바로 성도들이 연합하여 기도하는 소리입니다.

2) 바울이 자신을 “죄사슬에 매인 사신” (an ambassador in chains)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사도 바울은 인간의 역사 크로노스에서는 로마의 감옥에 갇힌 미결수 이지만, 하나님의 역사 카이로스에서는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사신이 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 에베소 성도들은 바울이 옥에 갇힌 것이 에베소 교회 출신의 드로비모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성령께서 자신을 예루살렘으로 부르셨으며, 하나님께서 로마로 파송하셨다고 단언했습니다. 그래서 사슬에 매인 사신이라고 확인한 것입니다.
- 이러한 영적인 관점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영적인 현실을 보도록 도전하고 격려했을 것입니다.

3) 당신 주변에 두기고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당신은 두기고와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까?

- 내가 만난 두기고가 있는지 생각해 봅니다. 우리 삶에 두기고에게 있었던 세 가지 모습 중 (사랑받은, 진실한, 위로의 사람) 가장 두드러진 것은 무엇이고, 가장 부족한 것은 무엇입니까?
- 우리가 두기고와 같은 모습으로 섬겨야 할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마 5:44)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4) 변함없이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이것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 먼저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롬 5:8).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할 만해서가 아니라, 사랑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사랑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 바울은 너희가 그런 사랑을 받았으니, 너희도 그렇게 사랑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Ex) 마태복음 18:21-35 에 보면 예수님도 왕에게 만 달란트 빚진 신하가 그 빚을 탕감 받고도, 나가서 자기에게 백테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나 은혜를 베풀지 않자 감옥에 갇혀 심판 받은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이와 같습니다.
-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영생의 선물입니다.
- 영원한 생명의 가치에 비교할 만한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무엇이 더 중요 합니까? 영생입니까? 당신 마음의 미움입니까? 분노도, 섭섭함도, 물질적 손해도, 건강도 영생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다. 적용질문

1) 당신이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생각해 보십시오.

-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첫째, 사랑방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제목을 나누고 기도하십시오. 둘째, 주보에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주시도록 기도하십시오.

셋째, 기도의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기도는 영적 무기인 성령의 검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중보기도 훈련에 참가 하십시오. 넷째, 교회 중보기도 사역에 동참해서 예배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2) 현재 당신이 처한 상황은 무엇이며, 상대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다른 사람과 당신이 처한 환경을 인간의 시간 크로노스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의 관점으로 본다면 어떻게 달라지겠습니까?

- 크로노스의 관점에서 고통과 불행, 고난과 아픔이었던 사건이나 관계가, 카이로스의 관점에서는 새롭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 그런 이해가 있었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 아니면 카이로스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이해해야 할 상황이나 사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십시오.

3) 당신이 두기고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사랑받은 자가 될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당신은 가족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까? 어떻게 사랑받을 수 있습니까?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방식이 아니라 상대방이 사랑 받는 다고 느끼는 방식으로 사랑해 주어야 합니다. “다섯 가지 사랑의 언어” 라는 책을 읽으십시오.
- 당신은 진실한, 믿을 만한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이 보지 않아도 법률적, 도덕적, 영적 진실함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아무도 보지 않을때 당신은 여전히 그리스도의 제자이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까? 하나님 앞에 진실함을 가져야 합니다.
- 당신의 언어와 표정과 태도와 행실은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편함이나 부정적인 말이나 행실을 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4) 우리 사랑방이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십시오. (또한 벨엘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